제2차 ESCAP 빈곤경감위원회 결과

Ⅰ. 핵심요지

□ 제 2차 ESCAP 빈곤경감위원회가 11.23(수)~25(금) 3일간 일정으로 태국에서 개최되었는바, 11.23(수)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음.

□ 우리측은 한국의 ODA 정책관련 동향을 간략히 소개하고, ESCAP 사무국이 새마을 운동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였음.

Ⅱ. 김학수 사무총장 개회사

□ 아태지역은 역동적인 지역인바, 지난 수십년간 빈곤퇴치와 관련 상당한 진전을 이룩하였음. 특히, 절대빈곤 인구의 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음.

□ 그러나, 절대빈곤인구의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문제는 여전히 역내의 중요한 문제이며, 특히 국가간의 격차가 큰 문제임.

Ⅲ. 토의내용

가. J. Mirrlee 교수(노벨경제학상 수상자) 특강

□ 빈곤을 정의하는 것은 불가하나 실용적인 목적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함.

□ 빈곤을 퇴치하는 방법으로는 이전(transfer)과 투자(investment)가 있음.

- 이전(transfer)은 공공지출확대 등을 통한 소득증대를 포함함.
- 투자(investment)는 간접적이어서 효율적이 아닌 경우도 있음.

□ 이전에는 사기 또는 부패가 수반될 수 있으나 투자는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움.

□ 무료의료서비스, 무료교육 등이 정책적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음.

- 그러나,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수입이 증대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.

나. 지방분권과 빈곤경감

□ 인도, 파키스탄 등은 자국의 사례를 들어 지방분권이 빈곤경감에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.

□ 빈곤측정과 같은 분야에 있어 지방분권은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.

다. HLP 후속조치

□ 일본은 자국이 전세계 ODA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국내 경제사정상 단기간내에 ODA를 대폭 확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며, 사무국의 문서 내용중 부채탕감이 마치 모든 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최빈국에 국한되고 AIB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대입장임을 분명히 하였음.

□ 우리측은 지난 2000~2004년간 ODA를 두배로 증대하였고, 향후에도 ODA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, APCICT를 통해 역내 정보격차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음.

□ 러시아는 빈곤관련 역내 통계의 갱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음.

□ 파키스탄은 선진국들이 ODA를 늘려야 한다고 하였음.

라. 빈곤경감관련 프로젝트

□ 일본은 ESCAP이 빈곤경감과 관련 UNHABITAT 등과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과 빈곤관련 프로젝트도 필요함을 강조하였음.

□ 러시아는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파트너쉽이 필요하며, 빈곤경감에 경제성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였음.

□ 우리측은 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무국이 동 운동관련 프로젝트를 더욱 충실히 할 것을 요청하였음.

– 상기관련, 사무국측은 금년말 동 운동관련 1단계 프로젝트가 종료될 예정이며, 2단계 사업 추진관련 KOICA측과 접촉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고 하였음.

[자료:주태국 대사관]